최영미 정신분열증 치료 상황(82.4-87.7)

입 원 기 간	병 원 명	비 고
82.4.19 - 7.5	서울대학병원	입원 당시 목을 매어 자살기도 했으나 미수로 그침
82.9.15 - 9.28	인천기독병원	
83.9.16 - 9.24	인천기독병원	본인의 애걸로 입원기간을 단축함
83.12.29 - 84.2.1	인천기독병원	
84.6.25 - 7.18	인천기독병원	면도날로 자신의 동맥을 끊으려고 함.
84.11.14 - 12.21	서울백제병원	
85.6.6 - 7.23	서울백제병원	
85.11.25 - 12.28	인천기독병원	특수치료로(13번)후유증이 심해 한동안 한글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했음
86.1.3 - 2.19	인천기독병원	

86.3.29 - 4.12	인천기독병원	
86.4.15 - 6.21	용인정신병원(인산병원)	이 기간중 부친 사망
86.7.8. - 7.11	용인정신병원(인산병원)	의료보험의 혜택이 없으므로 입원 기간 단축
86.7.19 - 8.21	인천정신요양원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의료시설은 없고 수용소나 다름없음
86.12.23 - 3.20	인천정신요양원	
87.4.10 - 5.5	곤지암 수도사 기도원	
87.5.6 - 5.11	인천기독병원	
87.5.11	서울 국립정신병원 입원	

최영미 부친 최운직씨는 작고하기 직전인 1985년 8월 17일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탄원을 한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1986년 2월 10일 국가안전기획부 감찰계 직원이 최운직씨를 방문해 피해자 조서를 받아 가면서 "곧 청와대 회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나 회답은 없었고 이후 과음과 화병으로 1986년 6월 16일 작고 하였습니다. 이후 최영미 모친 전진숙씨가 6.29선언 직후인 1987년 7월 2차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냈으며 정치적 상황변화 때문인지 1987년 9월부터 안기부 인천지부에서 최영미를 일생동안 책임지고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후 1992년 말까지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며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4. 최영미의 최근상태

최영미는 1989년 9월이후 안기부의 치료지원으로 많은 차도가 있었습니다. 기억상실증에서 많이 회복되어 한글도 쓰고 읽을 줄 알게 되고 사람도 기억하는 등 기억력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큰오빠 식구들과 같은 집에서 기거하고 있는데 가정형편상 정신병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왔을 때에는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불안한 상태인데 형편상 약물치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먹고 자기만 하기 때문에 비만한 상태이며 합병증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루빨리 입원치료가 절실한 상태이며 그녀의 가족들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평생치료를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5. 최영미 피해보상 및 치료를 위한 대책방안

1) 각계요로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안

특히 김영삼대통령께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남기고 간 상처를 문민정부에서 치유해 달라는 탄원이 필요함

2) 법률적 해결방안

인천지방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혹은 목요회 시민봉사실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검토. 87년 9월부터 안기부 인천지부가 최영미 치료비를 부담해 온 것을 채무의 승인 행위로 해석할 경우 시효등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슴.

3) 언론에 호소하는 방안

중앙지,지방지기자들에게 자료를 제공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신 원 서

신원인 서 운 직

피신원인 서 영 미

탄 원 서

탄 원 인

인천직할시 [redacted]

전화 [redacted]

최 운 직 (崔運稷)

1927. [illegible]. 5. 생 (58년)

피 탄 원 인

위 같은 곳

최 영 미 (崔永美)

1961. 10. 11. 생 (24년)

국사다난하신 이때에 대통령 각하께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심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단원인은 단원인의 세째딸입니다.

그리고 단원인은 연안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동생과 공히 월남하므로서 이북에 계신 부모의 생존조차 모르면서 계속 경찰에 몸을 담고 30년간이나 경찰관으로 봉직하면서 그간 직무에 충실하였다고 인정받아 박정희대통령 각하를 위시하여 내무부장관, 계엄사무소장, 경기도지사로 부터 6회에 걸쳐 표창까지 받아 온 경찰공무원으로서 1978. 5. 말에 경사로 정년퇴직을 한후 현재는 택시 2대를 운행하여 가족과 더불어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원인 부처는 일본국 대판에 거주하는 두째딸의 초청으로 해외 여행중이다 부재중인 1981. 6. 10. 07:00경 위 주거지 집 2층방에서 자고 있던 피단원인 (당시 20세)을 누구인지 잘모르는 건장한 남자 3인이 찾아와서 확실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연행하여 간후 동일 19:00경에 이르러 단원인의 집으로 전화로 피단원인을 데려가라고 하므로서 당시 집에 있던

단원인의 큰 아들 최영호가 찾아간곳이 안전 기획부 인천 분소 (당시는 중앙 정보부 인천 지부로 알고 있읍니다.)였는데 피단원인은 창백한 얼굴로 몹시 시달렸던 모습을 보고 일단 집으로 데려고 왔읍니다.

그런데 단원인이 해외 여행에서 돌아와서 본즉 평소에는 명랑하던 피단원인의 동태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정신 상태가 지극히 불안정하였으므로 연행되었던 사항을 물었던바 처음에는 말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말하기를 그곳에서 (연행 되었던 곳) 집에 돌아가서는 절대로 조사받은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를 받었다고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지하실에서 심한 신문을 받었는데 자신을 간첩으로 몰려고 했다고 하면서 울기만 하고 신문받은 구체적 사실은 말하지 않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단원인 부처는 별일없을것으로 알고 피단원인의 동태만을 살피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면서 피단원인은

그해 9월경부터는 밤에는 누가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것같다는등 엉뚱한 말을 하면서 문을 안으로 꼭 잠그고 있는등 그 정신 상태가 점점 심하게 이상이 오는것을 느끼고 탄원인 부처는 피탄원인이 한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번민하는 정도로만 인정하고 각별한 주의로 위로해주는등 살피왔읍니다.

그러자 다음해인 1982. 4. 18. 에는 새벽 3시경에 피탄원인은 집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탄원인의 처 전진숙) 갈이 갈곳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 졸라서 탄원인은 처 전진숙으로 하여금 피탄원인을 따라 가게 하였던바 위와같이 기왕에 연행되어 조사 받었던 안전 계획부 인천 분소 였는데 피탄원인은 동 분소 숙직원 에게 자신이 전에 연행되어 조사 받었던 사실을 말하면서 그때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 때문에 심한 신문을 받었는데 이번에도 친구 에게 보낸 편지가 여기와서 있을터이니 내놓으라는등 횡설수설 하므로서 탄원인의 처 전진숙은 피탄원인의 정신 상태가 잘못 되었음을 인식하고 집으로 데려고 와서 일응 안정 시키면서 병원

으로 데리고 가서 진찰 해 보려고 준비하던차 다음날인 1982. 4. 19. 18:00경 피탄원인은 위집2층 화장실에서 나이론 끈으로 목을 매고 안전 면도날로 왼손목을 찢으면서 비명을 지르므로서 정신 이상이 분명하므로 그 즉시 피탄원인을 데리고 인천시내 수개처 병원을 다니었으나 여의치 아니하므로 그 즉시 서울 대학 병원 으로 데리고 가서 입원시키고 진찰한바 의사의 진찰에 의하면 정신적 충격으로 발생한 정신 분열증이라고 하면서 장기간 입원 해야 한다고 하므로 그곳에서 동년 7. 5. 까지 입원 치료하여 다소 회복의 기미가 보임뿐더러 경제적 사정으로 일응 퇴원 하였읍니다.

그런데 피탄원인은 또다시 재발하여 1982. 9. 15. 인천 기독 병원에 입원 시켰다가 동년 10. 5. 에 피탄원인이 집으로 돌아갈것을 애원하므로서 일응 퇴원했으나 또다시 재발하여 다음해인 1983. 9. 16. 부터 동월 24일 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 하고 또다시 다음해인 1984. 6. 25. 부터 동년 7. 18. 까지 동 병원에서

입원 치료 했으나 치유되지 아니하므로 1984. 8. 24. 부터 서울 백제 병원 에서 통원 치료 중 1984. 11. 14. 부터 동년 12. 21. 까지와, 1985. 6. 6. 부터 동년 7. 23. 까지 입원 치료했으나 도저히 치유되지 않고 있는 것 입니다.

피단원인은 위와같이 간첩 혐의를 받고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방면된후 3년간이나 단원인 부처는 물심양면으로 모든 정성을 들여서 치유토록 했으나 그 보람도 없이 피단원인은 정신 분열증으로 신음 하고 있는것입니다.

피단원인은 24세의 미혼처녀로서 갱생의 희망이 없는 불구의 몸이 되므로서 그 어버이인 단원인 부처는 일구월심 피단원인의 장래에 대하여 근심하므로서 단원인은 여타 가족들의 생계 유지 및 부양에 대한 의욕조차 저버릴 정도로 정신적으로 쇠퇴되어 가고 있는 처지에 빠져 있읍니다.

대통령 각하에게 위와같은 단원인의 일개 가족에 대한 사정을.

말씀드리는것은 심히 죄송 스러운 일로 사료 되오나 탄원인은

3년간이나 피탄원인의 치료를 위하여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되었아오니 위와같은 전후 사정을 명찰하시옵고 가련한 피탄원인의

처우에 대한 각별한 혜택의 조치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두서

없는 탄원서를 제출 하는 바 입니다.

첨부

1. 진단서 2통

2. 입원 확인서 1통

3. 주민등록표 1통

4. 졸업증명서 1통

5. 성적증명서 1통

6. 표창장 사본 6통

1985. 7. .

위 탄원인 최 운 직

대 통 령 각하

87년 7월

탄 원 서

탄 원 인

인천직할시 [redacted])

전 화 : [redacted]

전 진 숙 : (1933. 6. 13일) 당 54 세

피 탄 원 인

위와 같음

최 영 미 : (1961. 10. 11.) 당 26 세

국사 다난하신 이때에 대통령각하께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심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탄원서는 로 보내는 것으로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첨부된 원본을 1985. 8. 17. 청와대로 우송했던바 1986. 2. 10. 안전기획부 감찰계 직원이 나와 피탄원인의 부친께로 찾아와서 사과하며 청와대로 보고를 하기위한 조서를 받아가면서 바로 청와대에서 회신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후 아무런 회답이 없어서 다시한번 각하께 탄원서를 올리오니 저의 처지를 가련히 여기시여 통찰하여주시면 그 은혜 백골난망이며 잊지 않겠읍니다.

첨부해 올린 첫번째 탄원인 부친 최운직은 딸로 인해 받은 정신적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과음으로 인해 1986. 6. 16. 작고 했읍니다.

이로 인하여 그 동안 혜택을 보면 의료보험이 없으므로 병원은 엄두도 낼수 없고 다른 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다 말할수 없는 상황이 되었읍니다.

대통령각하께 일개 가족에 대한사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심히 죄송스러운 일로 사료되오나 이제는 경제력이 없어 치료가 불가능하고 가산이 기울여 살 길도 막연하게 되었아오니 위와 같은 전후 사정을 통찰하시옵고 불쌍한 피탄원인의 치유에 대한 각별한 혜택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두서없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피탄원인이 그 동안의 입원 치료한 기간을 요약해서 적었아오니 불쌍한 우리 딸을 병원에서 치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줄이겠읍니다.

탄 원 서

탄원인 전 진 숙 당 60세

TEL: [redacted] 1933. 6. 13.생

인천 남동구 [redacted]

피탄원인 최 영 미 당 32세

위와 같음 1961. 10. 11.생

국사 다난하신 이때에 대통령 각하께 이러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음을 심히 죄송하게 사료됩니다.

이 탄원서는 청와대로 보내는 것으로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첨부된 탄원서 1, 2를 우송했던바 합민 01254-35403에 의거 안기부 요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치료를 일생동안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한후 87년 9월부터 88년 5월까지 용인정신병원에서 입원, 88년 5월부터 92년 10월 30일까지 인천 신경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했으나 병원에서는 의보환자는 장기 입원시킬 수 없다며 강제 퇴원시켜 현재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 12. 28. 동사무소에서 평생의료보호 1호 진료증을 반납하라는 연락이 와 확인한바 담당직원이 감사에 적발되여 진료

증을 쓸 수 없게 되였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는 평생 약물치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때때로 발작증세를 일으킬 때에는 입원치료를 해야 하나 부친의 사망, 모친의 중병(협심증, 당뇨)으로 입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보험 혜택만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 각하께 사적인 가정의 사정을 말씀을 들리는 것은 심히 죄송스럽사오나 의료보험 혜택만 입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몇가지 참조하실 첨부 내용도 함께 보내드리오니 이제 20세 학생이 30세 넘은 처녀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는 저의 딸을 불쌍히 여기시어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1993. 4. 30.

첨부 : 입원기간 2통
탄원서 (1) 1통
탄원서 (2) 1통
입원치료 확인서 1통
민원사안 이첩통보 1통
생활보호 사업 안내 1통
진단서(본인) 1통

탄 원 서

탄원인

성명 : 전 진숙　　　　생년월일 : 1933.6.13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주소 : 인천시 [redacted]

전화번호 : [redacted]　　　피해자와의 관계: 모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 최 영미　　　　생년월일 : 1961.10.11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주소: 인천시 [redacted]

탄원인과의 관계 :딸

김 영삼대통령께 드리는 글

신한국 창조를 위해 개혁과 변화를 추구해 가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국민의 산사람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정부의 등장으로 과거에 잘못된 점들이 고쳐지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벌을 받고,억울한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등 선정을 베푸서서 많은 서민들은 대통령님의 노고에 많은 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탄원서를 대통령께 보내게 된 이유는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이 있는 데, 이문제는 결국 대통령께 하소연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내용은 5공화국 군사정부의 강압통치로 정신병자가 되어 13년째 신음하고 있는 한 생명을 문민정부의 대통령이신 김영삼대통령께서 어버이의 입장에서 보살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십사 하는 가련한 민초의 울부짖음으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경과

피해자 최 영미는 저의 3째딸로서 사건이 일어난 당시 인천대헌공업전문대학 통신과

2학년에 재학중이 었습니다.

당시는 1980년 민주화의 봄과 광주민주화운동이 군사정부의 유혈진압에 짓밟혀 침묵이 강요된 상태였습니다

제딸 최영미는 이시절 새정부가 저지른 만행에 분노를 느끼는 수많은 대학생중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영미는 그렇다고 운동권학생은 아니었으며, 다만 시국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친구들과의 대화나 서신왕래 과정에서 토로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중 1981년6월 10일 오전 7시경 영미가 2층방에서 자고 있는 데,인하공사(안기부 인천지부)에서 왔다는 건장한 남자 3인에게 연행되어 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죽은 제남편 최운직과 함께 일본에 있는 둘째딸 집을 방문할 겸 여행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당시 집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집을 지키고 있던 탄원인의 큰아들 최영호와 영미의 말을 듣고 알 수 있었는 데 영미가 연행된 곳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안기부 인천지부 였는 데 이곳 지하에 있는 취조실에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미가 연행된 이유는 영미가 친구 경혜에게 1981년 4월 25일 보낸편지가 어떠한 경로로 안기부에 전달 됐는 지 모르지만 그 편지의 내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딸 영미는 11시간 동안 취조 당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협박에 몹시 시달렸다고 합니다. 안기부의 연락으로 제큰아들 영호가 안기부에 가서 영미를 데려올 때는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었으며 얼굴이 몹시 창백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이후 영미는 자신이 안기부 요원들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심한 강박관념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는 데,이로인한 계속적인 긴장상태와 공포감으로 정신상태가 매우 악화되다 결국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 현재까지 고통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2. 정신분열증 치료과정

1)가족에 의한 치료

영미는 1982년 4월부터 1987년 7월까지 무려 17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데 1985년 인천기독병원에 입원했을때에는 특수치료에 의한 휴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려 한글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심한 상태에 놓여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이 과정에서 가산을 탕진하는 한편 제남편 최운직이 1986년 화병으로 죽는등 온갖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 제남편 최운직은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제직중 대통령표창, 내무장관표창등 6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등 모범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78년 5월 경사로 정년퇴직한 이후 택시2대를 운행하며 가족과 더불어 생활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제남편 최운직은 작고하기 직전인 1985년 8월17일 전두환대통령께 이와 관련한 탄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1986년 2월10일 국가안전기획부 감찰계직원이 제남편을 방문해 "곧 청와대 회신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나 회답은 없었고 이후 과음과 화병으로 1986년 6월 16일 작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6.29선언 직후인 1987년 7월 2차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냈으며, 상황이 변화한 때문인지 1987년 9월부터 안기부 인천지부에서 저에게 '영미를 일생동안 책임지고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이후 1992년 말까지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며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가족에 의한 치료상황 (82.4 - 87.7)

입 원 기 간	병 원 명	비고
82. 2.19 - 7. 5	서울대학병원	입원당시 목을 매어 자살기도 했으나 미수로 그침
82. 9.15 - 9.28	인천기독병원	
83. 9.16 - 9.24	인천기독병원	본인의 애걸로 입원기간단축함
83.12.29 - 84. 2. 1	인천기독병원	
84. 6.25 - 7.18	인천기독병원	면도날로 자신의 동맥을 끊으려 고함
85.11.14 -12.21	서울백제병원	
85. 6. 6 - 7.23	서울백제병원	

85.11.25 -12.28	인천기독병원	특수치료로(13번)휴유증이 심해 한동안 한글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했음
85. 1. 3 -2.19	인천기독병원	
86.3.29 - 4. 12	인천기독병원	
86.4.15 - 6.21	용인정신병원(인산병원)	이 기간중 부친사망
86.7.8 - 7. 11	용인정신병원(인산병원)	의료보험의 혜택이 없으므로 입원기간 단축
86.7.19 - 8.21	인천정신요양원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의료시설이 없고 수용소나 다름없음
86.12.23 -3.20	인천정신요양원	
87.4.10 - 5. 5	곤지암 수도사 기도원	
87.5.6 - 5. 11	인천기독병원	
87.5.11	서울 국립정신병원 입원	

2)안기부 인천지부 부담에 의한 치료

안기부는 영미를 처음에는 인천정신요양원(남구 동춘동 소재)에 입원치료를 해주다가 1987년 9월부터 1985년 5월까지는 인천정신요양원을 보호자로 하여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였으며, 1988년 5월부터 1992년 10월30일까지는 역시 인천정신요양원을 보호자로 하여 삼영신경정신병원(현 삼영원. 인천시 서구 심곡동 소재)에서 입원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삼영원(삼영정신병원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되면서 명칭이 변경됨)에서

의료보호환자는 장기입원을 시킬 수 없다면서 강제 퇴원시켜 1992년 12월 월까지는 통원치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2년 12월 28일 구월2동 동사무소에서 평생의료보호 1호 진료증을 반납하라는 연락이 와서 그나마 통원치료조차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되엇습니다.

그동안 치료받는데 근거가 된 의료보호증이 안기부의 영향력하에서 편법으로 발급된 것이고 담당 동사무소직원이 감사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진료증을 쓸 수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이후 영미를 치료할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13년동안 정신병자로 신음하고 있는 딸을 치료하느라 가산을 탕진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오느라 이제는 심신이 모두 지쳐있습니다.

저는 지난 1993년 4월30일 김영삼대통령께 영미를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탄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천 남동구청에서 온 회신은 "생활보호자에게 드리는 의료보험대상이 아니므로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영미의 최근 상태

영미는 1989년 9월 이후 안기부의 치료지원으로 많은 차도가 있었습니다. 기억상실증도 많이 회복되어 한글도 읽고 쓸줄도 알게 되었으며, 기억력도 많이 살아났습니다. 현재 저와 큰아들식구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형편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왔을때에는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불안한 상태인데 약물치료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먹고 자기만 하기 때문에 비만한 상태이며 합병증 증세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입원치료를 해 줘야 할텐데 길이 없습니다.

3. 탄원인의 요청사항

김영삼대통령님 저희 영미를 치료해 주십시요

지나친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5공 군사독재가 남기고간 상처를 문민정부에서 치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미의 현상태가 영미의 잘못때문입니까 ? 아니면 저희 가족의 잘못때문입니까?

영미는 분명 정부의 잘못으로 정신병자가 된것입니다. 물론 그당시 정부는 잘못된

정부였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애절하게 부탁합니다.
영미를 치료해 주십시요.
대통령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별첨자료

1.진단서
2.탄원서(1.2.3차)
3.사진

위내용은 사실입니다.

1993. 10. 8 .

탄원인 전 진숙드림

대조필 인
㊞

진 단 서

병록번호 B 21

연 번 호 93-7-14

주민등록번호 [redacted]

1. 환자의주소	- 인천 남동구 [redacted]						
2. 환자의성명	최 범기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6 년 10 월 11 일	연령	만 31 세
3. 병 명 ☐ 임 상 적 ☑ 최 종	정신분열증			국제질병분류번호 295.9			
4. 발 병 일	1988 . 5 . 18.						
5. 향후 치료 의견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비 고	동회 제출용 [용도외 사용은 무효]						

위와 같이 진단함

발 행 일 : 서기 19 93 년 3 월 24 일

병 원 주 소 : [illegible]

병 원 명 : [illegible] 전화번호 :

(면허번호 27279 호) 의사성명 신 [illegible] ㊞

(참고)

1. 본인 확인은 진단의사가 주민등록증과 대조(미성년자일 때는 기타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확인하고 날인한다.
2. 병명은 임상적(인푸렛숀)과 최종진단명을 택일 ☐ 표에 ×표로 표한다.
3. 병명과 국제질병 분류번호를 함께 기입한다.

주간 노동자신문
1993년 10월 15일(금요일) 제213호

잃어버린 청춘, 누가 보상?

12년째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딸의 치료를 위해 안기부 인천분실(일명 인하공사) 등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애끓는 모정의 몸부림이 지금 인천 지역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편지 사건

사건의 발단은 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헌공업전문대 2학년에 재학중이던 최영미씨가 당해년도 6월10일 상오 7시 경 확실한 신분도 밝혀지지 않은 3인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끌려가면서 시작된다.

당일 하오 7시경이 되서야 전화 연락을 받고 가족들이 최영미씨를 찾아간 곳은 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국가안전 기획부 인천분실이었다. 가족들에 따르면 "당시 최영미씨는 창백한 얼굴에 몹시 시달린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데리고 온 이후 평소 명랑하던 최씨의 행동이 말수가 적어지는 등 조금씩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영미씨는 이 사건 직후 가족들에게 "그곳에서(안기부를 말함) 집에 돌아가서는 절대로 조사받은 일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고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지하실에서 심한 심문을 받았는데 자신을 간첩으로 몰려고 했다고 말하고서는 울기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씨는 날이 갈수록 정신 상태가 혼미해져 갔고 그 해 1월에는 "누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것 같다"고 하면서 문을 안으로 잠그는 등의 행동까지 했다. 이같은 최씨의 이상한 행동은 82년 4월18일에도 이어졌다.

새벽 3시반경 어머니 전진숙씨를 깨워 안기부 인천분실까지 데리고 가서는 숙직을 서고 있던 직원에게 "전에 연행돼 조사 받았을 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문제됐는데 이번에도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여기에 와 있을 테이니 내 놓으라"고 한참을 요구하다가 모친의 설득으로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더우기 다음 날 하오 6시경에는 자택 화장실에서 나이론 끈으로 목을 매고 면도날로 왼쪽 손목을 찢으면서 자해를 가하다 가족들에게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 대학병원에서 '정신분열증세'로 판정을 받은 최영미씨는 이때부터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본격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힘겨운 병간호도 뒤따랐다.

아버지의 죽음

안기부라는 권력 기관의 서슬 퍼런 입김이 사회 곳곳에 스며 있던 5공화국 하에서 최영미씨 가족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지 자비로 최씨의 병치료에만 전력하는 길 뿐이었다.

그러나 입원비만도 만만치 않아 최영미씨는 87년까지 무려 17번이나 인천기독병원 용인정신병원 서울국립정신병원을 오가며 약물 치료와 입원을 반복하는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야 했다.

급기야 85년 8월 최씨의 부친 최운직씨는 청와대에 이와 관련한 탄원을 하게 됐고 86년 2월경 안기부 감찰계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방문해 조서를 받아 가면서 "곧 청와대 회신이 있을 것이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조처가 취해지지 않자 그 해 6월 울화병까지 겹쳐 59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고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후 최영미씨의 모친 전진숙씨는 6·29선언 직후인 87년 7월 2차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그러자 정치 상황의 변화 때문인지 안기부 인천 분실에서 최영미씨 가족에게 키가 크고 마른 체구의 '박선생'이라는 사람편으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후 최영미씨는 용인 정신병원, 인천 신경정신병원에서 92년 10월가지 장기입원 치료를 받았다. 물론 가족들은 치료비를 일체 지불한 적도 없었다. 91년 10월경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 대상자'로 혜택을 받아 평생의료보호증까지 받았다.

그러던 중 92년 12월28일이 진료증이 동사무소에 반려됐다. 당시 최씨 가족을 찾아 온 동사무소 직원은 "감사에 적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다시 안기부 인천분실로 찾아 갔다. 성씨밖에 모르는 '박선생'을 찾았으나 이번에는 키가 작고 비교적 뚱뚱한 체구의 남자가 나와서 "그정도 해줬으면 된 것 아니냐"면서 냉랭한 반응만을 보였다고 한다.

안기부의 특혜(?)

결국 최씨 가족들은 발걸음을 돌렸고 최영미씨는 현재 집에서 모친이 타다 주는 약을 복용하는 정도의 치료만을 받고 있다. 다행히 병세가 많이 호전돼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2번에 걸친 자해 소동까지 겪었던 가족들로서는 앞으로의 치료가 막막한 실정이다. 게다가 재판을 제기하고 싶어도 시효기

최영미 사건자료

1. 인적사항

생년월일 : 1961. 1. 11일생.

2남 3녀 중 막내

학력 : 83년 대헌공업전문대 통신과 졸업.

주소 : 인천 주안

현재 어머님과 오빠 내외와 조카들과 함께 살고 있음.

2. 병명

정신분열증 (의사들은 원인불명이라고 함).

1982. 4월부터 1987. 4월까지 17차례 입원.

3. 사건개요

1981. 6. 10일(대학 1년 재학중) 오전 7시경 집에서 잠을 자다가 중앙정보부 인천분실 소속의 직원 3명이 "잠깐만 물어볼 말 있다"면서 영장도 없이 연행한 후 안기부 지하 취조실에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한 후 당일 오후 7시경 전화해 데려가라 함. 오빠가 데리고 왔음. 오빠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겁에 질리고 창백해 있을 뿐 별말이 없었으며, 다만 "부모가 왜 일본에 갔느냐고 자꾸만 추궁하면서 최양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여주더라"고 조사내용을 말함. 그 편지에는 별다른 내용도 없었음. 부모님은 황해도 출신임.

그당시 부모님은 결혼 후 일본에 살고 있는 딸이 박람회 초청장을 보내와 일본에 간 지 하루 뒤의 일이며, 20일간 체류하고 왔음. 그후 부모님이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으나 별일 없었다고 함.

그후 1~2달 후부터 최영미가 이상해짐. "누가 들어온다"며 문을 잠궈놓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으며 2층에서 넥타이로 목메달고 동맥 끊고 자살 기도함. 이후 이런 식의 자살을 수차례 시도함.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최양은 "살아서 뭐하느냐 죽고 싶다" "그놈들이 '너 여기서 있던 일 발설 하면 너희 식구들 다 몰살하겠다'고 했다"면서 그 말이 생각 나서 "우리 식구들 모두 죽일 것 같다"고 함.

최양이 하도 고통스러워하며 안기부에 가보자고 하기에 어머님과 최양이 인천 안기부에 갔더니 큰 개가 사납게 짖었으며 검문하는 직원이 최양을 한참 쳐다보다가 "예전에 와서 조사받았던 학생이구만!"하며 최양을 알아보았다. 최양이 위 직원에게 "편지 입수된 게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함.

1982. 2월 첫 발작 일어남.

악쓰고, 부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소리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감. 옷

벗고 인천 안기부 앞에 앉아 있는걸 어떤 목사님이 집으로 데리고 왔음. "두 사람은 나이가 먹었고 유독 한 사람이 더 심하게 했다"며 악을 악을 씀.

그후 서울대병원에 두달 반 동안 입원시킴.

병원에서도 의사들 보고 "저놈들 다 중앙정보부서 나온 사람들이다"며 날뛰었으며, 창문틀에다 목메고 자살 기도 하다 떨어져 뇌진탕에 걸려 3일 만에 깨어났음. 병원측에서 약물치료 중단하고 6개월 동안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으나 부모님은 병이 악화될 것을 염려해 이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퇴원 때 병원측에서 자퇴서 쓰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서울대병원에서는 입원 안 시켜줌. 이 당시 의사들에게 원인이 무어냐고 물었더니 원인불명이라고 함.

이후 1년에도 몇차례씩 짧으면 20일 길면 3개월간 입원 치료 했으나 퇴원 후에는 다시 나빠지고 별로 효과 없음.

1985년 청와대에 탄원서 냄.

1986. 2월 안기부에서 나와 아버지(경찰관 출신)의 회사(퇴직후 택시회사 경영하던 상태)로 찾아와서 좋은 회신이 올 거라고 함.

1986. 6월 아버지 홧병으로 죽음.

1987. 7 또다시 어머니가 청와대에 탄원서 냄.

이때 법률구조사무소(주안에 있으며 부모님은 연락한적 없음)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시효가 지나 소송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함. 이에 어머님이 청와대로 직접 찾아가겠다고 하자 다음날 안기부(?) 직원 2명이 나왔음. 어머니가 "치료비가 엄청나게 들었다, 보상금을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는 못하고 이전 치료비는 우린 책임질 수 없다. 지금부터 평생토록 최영미씨 치료비는 책임지겠다"고 함. 이 당시 어머니가 편지의 입수동기를 물었더니 "주안에서 20년 동안 약국하던 어떤 사람이 알고보니 간첩이었다, 최양 부모님이 일본에 갔길래 한번 조사해봤다"고 답함. 영미 편지 내용이 어쨌느냐고 부모가 재차 묻자 안기부 직원들 우물쭈물 함.

1987. 9~1992. 10. 30까지 5년 동안 관비로 치료받음.

1987. 9~1988. 4 용인정신병원

1988. 4~1992. 10 30 삼영정신병원입원(인천시 서구 심곡동 소재) : 의료보험 해당기간은 40만원 선이며 의료보험 비해당 기간은 100만원 선임.

1988 사회복지로 명칭 바뀌면서 관비 처리. 이때 보호자가 요양원으로 되어있으므로 가족이 자유로이 입퇴원시킬 수도 없었으며, 5년 동안 외박은 2번 정도 했음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면 관비 처리 안될까봐 퇴원도 못 시켰음).

1992년 1년간만 의보 처리(어머니가 영미를 단독 세대주로 해서 의보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서 1992년 의보 나옴). 이후 정부에서 동회에 감사 나와 부모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자기집이 있으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위법이라고 지적받자, 시, 구청, 동회에서 함께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동직원이 "영미씨가 불쌍해서 해주었다"면서 시말서를 썼음.

이 사건 이후 의보증 회수되었으며 치료비 지급도 중단되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모 신문기자가 안기부에 전화해서 그 당시 생활보호자 처리를 해주어 관비 치료를 받게 해준 박씨를 찾았으나 "그런 사실 없다, 치료비 대준적 없다"며 딱

잡아 뗌. 어머니가 다시 안기부에 가서 박씨를 찾았으나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옴.

최양은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하실 골방으로 끌고 다니며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고 외치고, 주위 사람들이나 의사들을 보고도 "저놈들 다 중앙정보부에서 나온 놈들이다"라며 취조받았던 당시 상황을 상기해 당시의 심리적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 상태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같이 사는 조카가 "고모 헛소리 좀 하지마, 나 무서워"라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차라리 나 죽기전에 내 앞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죽으면 영미는 어떻게 되겠냐"며 눈물을 흘림.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농성이라도 하고 싶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군사정권에 의해 고생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 치료비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안기부 직원이 치료비를 대준 일조차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 기가 막히다고 함.

4. 현재 상태

1993. 5월 탄원서 다시 냄(치료만 해달라는 내용).

최양은 현재 발작도 하고 상태가 안 좋다. 그러나 치료비가 없어 입원도 못 시키고 또 입원 시켜봤자 낫지도 않는다. 혼자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어머니와 같이 다닌다.

라디오 음악방송 때 엽서 보내는 일이 유일한 소일이고, 일주일에 한번 어머니와 함께 성당 나가고 약타러 가는 일이 유일한 외출이다.

수사기관 (고문)피해 사례

이름 : 전희식
주민등록번호 : [redacted]0(35세)
주소 : 인천시 [redacted]
내용 : 불법연행, 불법감금, 집단폭행
사건명 : 조선노동당사건

1993. 7.

수사기관 (고문)피해 사례

피해자 인적사항

이름 : 전희식　　　　주민등록번호 : [redacted](35세)
주소 : 인천시 [redacted]
전화 : 집 - [redacted]
　　　사무실 - [redacted]
직업 : 사회활동(진보정당추진위 인천 시본부)
　　　사건당시 : 민중당 인천 북갑지구당 위원장

피해기관

국가안전기획부

관련사건

조선노동당 사건

피해내용

불법연행,불법감금,집단폭행으로 인한 피해임. 현재도 진행되고있음

1. 신체 : 가혹행위로 3주진단
2. 정신 : 우울증,피해의식
3. 금전 : 치료비,휴직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중단

현재도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

사건경위

1. 1992. 9.4.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조선노동당 사건 참고인으로 4인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며 서울시 중구 주자동 소재 국가안전기획부로 불법 연행됨
2. 연행 후 49시간동안 안기부 지하 취조실 감금당하여 진술을 강요당하며 집단폭행을 당함
3. 전신 타박상. 목에서 피가 올라와서 안기부 전속 의사가 와서 치료하고 투약(주사,알약)
4. 훈방직후 3주 진단이 남. 4일간 입원후 퇴원.(신천리 연합병원)

이후 증세와 투병생활

1. 전신 기능장애. 궂은날 심한 진통.

1. 전신 기능장애. 궂은날 심한 진통.
2. 시흥시 신천리 연합병원 입원치료
3. 한약 연 6-7개월 복용 - 1992. 9. - 1993. 5.(인천 남구 소재 홍일한의원)
4. 10일간의 단식치료(1992. 10.)
5. 1달간 지방 요양(1993. 6.)

피해보상을 위한 대응

1. 훈방즉시 진단서 첨부하여 서울 검찰청에 고소 준비중 안기부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서류일체 압수당함. 반환요구를 했으나 아직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
2. 1993. 4. KNCC 인권위원회에 진정 중
3. 1993. 7. KNCC 인권위원회에 재 진정

요구사항

1. 고문책임자와 고문행위자 처벌
2. 피해보상
3. 재발방지장치 설치

첨부자료

1. 고소장 초안
2. 신문보도(한겨레신문 1992. 9. 8. 15면) 사본
3. 잡지 보도(월간 길 1992. 10월호)
4. 진단서 사본(연합병원)
5. 진료카트 사본(홍일한의원)

1993. 7.
위 본인 전희식 (인)

고 소 장(초안)

고소인 성명 : 전 희 식
주소 : 인천시 [redacted]

피고소인 성명 : 이 상 연 외 6인

1992. 9. .

고소인 : 전 희 식 (인)

서울 지방 검찰청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성명 : 전 희 식

주소 : 인천시 [redacted]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인천 북구 갑지부 위원장

피고소인 성명 : 이 상 연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성명 : (자칭)백길호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국가안전기획부 수사파트 ( )실장

성명 : 미상1. 30대 중반, 170Cm정도 보통체격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국가안전기획부 수사파트 (자칭)백길호실장 부하직원

성명 : 미상2. 30대 말반, 174Cm정도 건장한 체격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국가안전기획부 수사파트 (자칭)백길호실장 부하직원

성명 : 미상3. 30대 중반, 176Cm정도 보통 체격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국가안전기획부 수사파트 (자칭)백길호실장 부하직원

성명 : 미상4. 30대 초반, 180Cm정도 건장한 체격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국가안전기획부 수사파트 (자칭)백길호실장 부하직원

성명 : 미상5. 30대 초반, 180Cm정도 크고 건장한 체격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주자동

국가안전기획부 수사파트 (자칭)백길호실장 부하직원

위 피고소인 7인을 불법연행, 불법감금, 집단폭행 혐의로 고소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내 용

1. 본 고소인은 1958년 8월 15일에 태어나 지금은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인천 북구 갑 지부(인천시 북구 부평4동 439-1 16통 1반)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 고소인은 1992년 9월 4일(금) 오후 4시경 서울 서초동 윤종현 변호사 사무실앞 인도에서 안기부 직원인 피고소인 (자칭)백길호, 동 성명미상1, 동 성명미상2, 동 성명미상3 등 4인에 의해 피 고소인들의 신분증 제시는 물론 영장제시나 구인장의 제시도 없이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채 강제로 승용차에 실려져 서울시 중구 주자동 소재 국가안전기획부로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 성명미상3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3. 그때부터 1992년 9월 6일(일) 오후 5시 40분경까지 꼬박 49시간 동안 동 장소에 감금되어져 강제연행 장소에서 퇴거코자하는 피고인의 의사가 강제로 거부당하고 교대로 성명미상의 수명의 안기부직원으로부터 감시당하는 등 강제 구금을 당하였습니다.

4. 국가안전기획부 지하 취조실에서 김낙중씨 사건 참고인으로 취조를 당하는 중, 강제연행된날인 1992년 9월 4일(금) 저녁 7시경, 피고소인 성명미상4, 동 성명미상5 등 2명으로부터 강제로 입고있던 옷이 벗겨지고 군복으로 갈아입혀져 근 1시간에 걸쳐 집단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인 위 2인은 고소인의 머리를 뒤로 젖혀서 목 울대와 복부를 당수로 십 수회 가격하고 목덜미를 장작패듯이 역시 십 수회내리쳤으며 머리를 십 수 차례 벽에 짓이기고 팔을 당겨 삔게한 후 팔목을 주먹으로 치고 고소인의 머리를 벽에 밀어붙여놓은채 자기머리로 박치기를 십 수회 했습니다. 또한 바닥에 쓰러진 고소인의 허벅지와 등짝을 십 수회 구두발로 내리찍고, 머리채를 움켜진채 몸통을 이리저리 뒤채면서 방 모퉁이에 고소인의 몸을 쳐박아놓고 수십회 짓밟았습니다.

이로인해 고소인은 하루동안 피가래를 토하였으며 1992년 9월 5일 오전에는 안기부 자체 의료진으로 보이는 의사 2명으로부터 진찰을 받고 목이 심하게 다쳐있다는 진단과 함께 3일분의 약을 지급받아 복용한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고소인은 전치3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첨부자료 2.)

5. 민주화의 진전을 치적으로 내세우는 6공화국 정부의 국가 공 기관이, 그것도 법을 집행하는 수사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가 도리어 명백히 법을 어기고서 김낙중씨 사건의 참고인에 불과한 고소인을 불법으로 연행하고 감금하며 집단폭행한것은 명백히 00000법 00조 00항( ), ***법 ***조 **항( ), %%%법 %%조 %%%항을 위반한것입니다.

6. 피 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집단폭행하거나 불법감금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억울하면 법대로 고소하던지 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전혀 개의치않았고 멉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러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러고도 그냥 넘어가는 그동안의 잘못된 경우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피 고소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진단서 - 1부
2. 한겨레신문 9월 8일자 15면 사본 - 1부

1992년 9월 일

고소인 전희식 (인)

- 월간 『길』 92. 10월호 -

강요된 이틀간의 남산 나들이

= 안기부에서 당한 수모와 치욕 =

서울 중심부에 솟아있는 남산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과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팔각정에 오르면 남산은 띠를 두른듯 굽이쳐 흐르는 은백색의 한강과 서울 전역이 한눈에 들어 오는 전망좋은 야산이 된다.

애국가의 한 소절에 등장하듯이 그냥 서울 또는 한국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막상 여기저기 아무곳이나 걸터앉기만 하면 더할나위없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닥아서기도한다.

오랜 옛날, 지금의 국립도서관이 어린이 회관으로 개관했을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야외음악당, 김구선생의 동상과 더불어 한결 진한 친근감을 갖고 있으리라.

그런데 어느때부턴가 「남산」은 독특한 뉘앙스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때로는 은밀한 소근거림으로, 때로는 격렬한 긴장과 공포를 수반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공포속에는 저주도 서려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남산」에서 풍겨나는 독특한 뉘앙스가 특정경우의 특정 인물들에게만 주어지는것은 아니다. 동아일보에 장기연재되고있는 '남산의 부장들'이 다른 수식어 없이도 일간지 연재물의 훌륭한 제목으로 자리잡았음을 본다.

그 「남산」에서 온 불청객을 나는 아무런 준비없이 맞이해야했고 그로부터 나의 이틀밤 삼일낮은 오로지 그들의 뜻에 내 맡겨야했다. 빼앗겼던 나의 이틀밤 삼일낮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며칠간의 병원신세로 이어졌다.

한편의 악몽과도 같은 사건의 시작은 9월 4일 부터였다.

그날 오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인천 북 갑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정중한 목소리의 「남산 사람들」은 사무실 앞 다방에 마주앉아 1 시간여 이야기를 나눌때도 나무랄데 없는 신사들이었다. 그들은 한참 연하인 나를 '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들이 알고자했던 구 민중당의 공동대표였던 김낙중 선생으로부터 300여만원의 중앙당 지원금을 여타 지구당과 마찬기지로 전달받았다는 사실은 그대로 시인했다. 중앙당에서는 지난해의 지자제 광역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따라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분기에따라 분배 받으므로 이것이 선거활동시 지급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만 그 사실을 진술서 형식으로 두 세 페이지 작성 해 달라는데에는 선뜻 응할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무 문제도 안되는 단순확인 사항이니만큼 협조 좀 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절하게도 나는 협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에 불과하다는 확인도 해 주었다.

나는 잠시 생각을 한 후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거기에는 두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김낙중선생을 불법연행하여 간첩단사건으로 이미 발표한데다 가족까지 납치하여 근 1주일째 감금하고 있을 뿐더러 변호인 접견마저도 불법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이 간첩단사건에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술서가 김낙중선생에게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내가 협조한다면 구속되어있는 김낙중선생에게 협조해야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면서 도리어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거듭하는 안기부에 협조할 수 있겠냐고 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뭘 부탁한다는게 몰염치하지도 않느냐고 했다.

여기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정중했다. 그리고 새로운 제의를 했다.

김낙중선생을 보고 그 앞에서는 쓸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이미 사실을 인정했고 추호도

숨길 생각이 없는고로 그러마고 대답했다. 이게 쥐덫이었다.

그들과 헤어진후 진정추 중앙과 이 사건에 선임된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취하고 수사관들과는 전화상으로 몇가지 약속을 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김낙중선생을 접견하여 진술서를 쓴다는 것과 그러기위해 오후 3시 반에 서울 서초구에 있는 윤종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변호사와 함께간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그들의 태도는 약속과 달랐다.

변호사는 안기부 면회실에서 대기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렇찮아도 그들의 약속을 미심쩍어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상 모든것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약속은 파기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감했었는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나를 수갑을 든 다른 안기부원 두명이 합세하여 뒤에서 공격해 왔다.

나는 이렇게 4명의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승용차 뒷 좌석에 가로 눕혀진채 붙들려 갔다. 승용차 안에서 계속 구호를 외치고 발길질을 했지만 팔목은 더욱 죄어오기만 하고 목과 발을 짓누르는 그들을 당해 낼 수가 없었다.

처음 만났던 수사관은 "결국 이런식이 되는겁니까"라는 나의 절규에 할말이 없다고만 하고 보강된 수사관들이 거치런 역할을 도맡았다. 모든것이 치밀하게 계획된것이라는 생각에 배신감과 분노가 함께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하여 남산1호터널을 지나 남산 중턱에 있는 안기부 지하 취조실로 끌려갔다.

취조실은 벽 4면은 물론 천정까지 흰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고 간이침대와 책상 3개가 전부였다. 그들은 전혀 흥분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초기의 나의 저항에 대해서도 대수롭잖게 대했다. 기를 죽이기 위한 몇차례의 시도가 나의 완강한 저항과 비난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냥 내버려 두었다. 제법 호기를 부리고자 하는 한 수사관(나중에 알았지만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자였다.)이 "뭐하는 놈이냐. 너 이름이 뭐야!"라고 하면서 덮쳐오다가 도리어 무안만 당하고 나가버렸고 근육으로 상체가 똘똘 뭉쳐있는 수사관 하나가 다가서서 군대에서 졸병 신고식 하듯한 투로 집적거리다가 안되겠던지 나가버렸다.(이 친구는 안기부에 있는동안 두번다시 보지 못하였다.)

저녁때가 지나면서 강제연행에 추가로 가담했던 한 수사관이 다른 참고인들이 쓴 진술서를 갖다주면서 그것을 보고 진술서를 써 달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의 진술서 사본을 보고서 나는 윤종현 변호사 사무실앞에 원래대로 다시 데려다 놓으라는 요구를 거두어들이고 진술서를 썼다.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지나간듯 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끌려다니고 얻어터지고 수사기관의 밥이나 되고 있는 자신의 처지가 비감하기도 했다. 수갑에 채워져 상처가나서 아리고 쑤시는 손목을 매만지면서 전날에 있었던 지부 사무실 상근자회의에서의 실언들이 부끄럽게 되살아 나기도 하고 저들의 공인된 폭력앞에 속수무책인 우리들의 한계가 처참해 지기도 했다. 과연 수사관들의 말대로 나는 '정치적인 감각'도 없이 사서 고생하는 것인가. 조서를 꾸미던 수사관이 이런저런 인간적인 말머리를 건낼때마다 말상대가 되곤했던 자신이 우서워지기도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밤이 웬만큼 깊어진 쯤이었을까. 눈을 지그시 감고 뒤로 기대있는데 "야 임마"하는 고함이 터졌다. 곧장 바로 코앞에 군복과 검정고무신이 내팽개쳐졌다.

"입어!"

취조실에 들락거리던 수사관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고 180㎝가 넘는 건장한 30대 초반의 사내 둘만이 버티고 서 있었다.

일어서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었다. 소나기처럼 주먹과 발길이 퍼 부어졌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한가롭게 오락가락하던 상념이 산산조각이 나고 아주 불길한 예감

이 머리를 스쳤다. 이 땅에 속절없이 또 한명의 간첩이 탄생하고 있다는 예감이었다. 군복을 입고 고무신을 꿰어차고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체력이 단련된 두명의 국가공무원은 뒷골목의 건달들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말투와 행동으로 샌드백을 치듯 두들기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나는 근 한시간을 지하 조사실에 감금되어 초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맞았다.

나의 머리를 뒤로 젖혀서 목 울대와 복부를 당수로 가격하고 목덜미를 장작패듯이 내리쳤다. 머리를 수 차례 벽에 짓이기고 내 머리를 벽에 밀어붙여놓은채 자기머리로 박치기를 마구 해 댔다. 바닥에 쓰러진 나의 허벅지와 등짝을 구두발로 내리찍고, 머리채를 움켜진채 몸통을 이리저리 뒤채면서 방 모퉁이에 내 몸을 구겨놓고 사정없이 짓밟아댔다.

내 머리속에는 거듭 이 척박한 한국땅에 또 한사람의 어수룩한 간첩이 생겨나는 순간이라는 생각뿐이었다. 나 같은 사람이 간첩이 되어주는것이 저들에게는 그렇게도 필요한것인가........ 나는 더욱 절망에 빠져들었다.

무엇이 생명부지의 이 젊디젊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화가나게 했을까. 감정이 상하거나 전혀 미워하지 않고서도 지시만 있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을 마구잡이로 두들겨 팰수도 있단말인가. 안기부 상급자의 지시는 이토록 무서운 힘을 가지는가.

"이놈의 간첩새끼 어디 맛 좀 봐라"

"위 아래도 없는 놈"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까불어?"

"나중에 고발 해 이 새끼야"

진술서에 김낙중'선생님'이라고 쓴것이 비위를 긁었나? 연행될때에 저항한것이 보복당하는건가. 아니면?

나의 첫마디는 거두절미하고 "잘못했습니다"였다. 그러나 이런말은 어디에도 소용이 닿지 않았다. 폭행업자에게 말꼬리만 제공 할 뿐이었다.

포도송이처럼 신문지상의 그림표에 주렁주렁 매달려 오를 나의 이름과 초췌한 얼굴 사진이 클로즈 업 되어왔다. 이때부터 나의 선택은 명료해졌다. 선택할 다른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폭행자들의 어떻한 지시와 물음에도 불응했다. 앉으라 서라 무릅꿇어라 어떠한 강요도 거부했다. 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내뱉기 시작했다.

"안기부가 날아가는 새는 떨어뜨릴지언정 내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할것이다."

"이 더러운 폭력으로 절대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는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젊은놈들아 정신차려라. 쎄빠트같은 놈들"

폭력을 업으로 삼는자들은 한시간여의 푸닥거리를 끝내고 사라졌다. 애초의 수사관들이 다시 들어왔다. 직전의 비명과 야수같은 고함소리를 밀어내고 솜처럼 부드러운 목소리가 취조실에 울려퍼졌다. 고생이 많았는데 샤워 좀 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한 두시간 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전 선생님'이 '전!'으로 바뀌어져 있었고 '너'라고 너무도 쉽게 바꾸어 불렀다. 그보다 더 변한것은 그런 말투를 조금도 이상하지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감각기관이었다. 한없이 쪼그라든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목에서는 피가래가 올라왔다. 목도 좌우로 제대로 돌지 않았다. 두 허벅지에 통증이 몰려들었다.

안기부 취조실에 끌려온 참고인과 그 취조실의 수사관 사이에는 얼마난 큰 차이가 가로놓여 있는지가 이제야 뼈아프게 절감되었다. 그들은 모든것을 가졌고 못 할 일이 없었다. 반면에 나는 이들의 영향에서 벗어날 어떤 수단도 가지지 못했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거절이라는 것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다. 더운물 샤워를 정성스레 했다. 비누

를 곳곳에 발라 수건으로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한 숨도 못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았다. 오전에 두명의 의료진이 와서 목이 심하게 부었다고 약을 지어주고 갔다. 조금있으니 사진을 찍는다고 복도로 데리고 가서 벽에 기대 세워놓고 카메라 렌즈를 여러차례 바꿔가면서 너뎃번 넘게 얼굴사진을 찍었다.
하루내내 진술서를 다시 써야했다. 인적사항을 꼬치꼬치 물어왔다. 직업훈련소 전자과를 나왔다는 부분에서 걸렸다. 통신을 잘 할 수 있을거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취조관은 '너는 내가 안다. 간첩이 아니야'는 말을 틈만나면 했다. 그말을 들을때마다 절망과 위안이 어지럽게 교차되었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전자과 출신,고생스러웠던 생활들. 꾸미기에 따라서 간첩이 되기에 손색이 없어보였다.
두번째날 저녁때였던가. 시계를 압수당했기에 24시간 내내 형광등이 켜져있는 지하 취조실은 시간을 가늠할 수가 없었다. 한 수사관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닥아 앉았다. 안기부로 끌려오자마자 언쟁을 벌이면서 안기부의 고위급 간부가 "너 뭐하는 놈이야. 이름이 뭐야 이새끼야"라고 하면서 덮쳐올때 반사적으로 가슴을 떼밀면서 "전희식이다. 간첩이다 왜 이새끼야"라고 했던것을 문제삼는 것이었다. 그 예민하고 날카로운 수사관은 말하기를 사람이란 감정적으로 흥분되어있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잠재되어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법이라고했다. 간첩이라는 용어에 대한 평소의 느낌,어릴적 느낌과 성인이 되고나서의 느낌, '간첩이다'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가슴이 내려앉고 두 다리가 덜덜 떨려왔다.
밤이 깊어서야 근 40여시간만에 눈을 붙이고 잘 수 있었다.
석방을 두시간여 남기고 마지막 시련이 있었다. 끌려왔을때 나의 폭언과 폭행에 대해 반성문을 써라는 것이었다. 한시간여의 실갱이는 훈방이 되느냐 구속이되느냐의 선택처럼 나를 압박해 왔다. 담당 수사관은 위의 지시라면서 자기얼굴을 봐서라도 써 달라고 초안을 써서 넘겨주기까지했다. 나는 욕됨을 감수하고 '.....강제로 연행되어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되어 있었던 상황이긴 했어나 연장자에게 도에 지나친 언사와 행동을 사과한다'고 '사과문'을 썼다. 몸과 마음이 송두리채 허물어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고위 상급자의 요구는 여기에 거치지않았다. '나는 간첩이다 라고 하는 등'을 넣어야 된다고 지시해 왔다.
나는 각오를 했다. 더 이상 욕된 타협은 있을수 없었다.
"그때 그새끼가 안기부 간분지 잡분지 알게 뭐난말이야. 그렇게 사람을 줘 팼으면 됐지 철면피한놈의 새끼!"라고 대들었다.
사과문 원본을 돌려줄것을 요구하고 48시간이 됐으므로 즉각 석방하던지 구속영장을 가져오라고 했다. 안써면 입건시킨다는 지시가 위에서 전달되어왔다. 처음보는 다른 수사관이 교체되어 들어왔다. 나는 그의 말문을 가로 막았다. 나의 결정은 끝났다고 말했다. 뒤에 확인이 되었지만 이미 세 시간여 전부터 안기부 정문앞에는 지부 상근자와 회원들이 20여명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었다.
승용차에 태워져 서울역 지하도 앞에 내렸다. 연행된지 49시간만이었다.
그렇다. 안기부의 모든것들은 사람이건 사소한 물건이건 치밀한 계획대로 움직이면서 사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조종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정중하고 점잖은 언사,진지하고 솔직한 대화,협박과 폭력,배신과 기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수사상의 한갖 요령일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뿐만아니라 밤낮이 구별되지않는 지하방에 종일 켜있는 형광등이나 빈 책상,담배,의자,인주,침대까지도 끼리끼리 필요한 만큼씩 배합되어 안기부를 불가항력,무소불위의 거대한 공룡으로 확대해 내고 피의자(참고인)를 거듭 위축시켜 어떠한 저항과 반발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갔다는 점이다.

2박3일간 지하 취조실에서 함께지낸 젊은 수사관들과 나누었던 웃음과 인간적 대화 모두가 부질없고 허망해 질 뿐이다.

나는 아무런 외상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절룩이면서 서울역 지하도로 내려섰다. 뒤돌아보이는 남산은 여전히 푸르고 싱싱했다. 그러나 나는 곧장 병원으로 가야했다.

3주진단이 나왔다. 병원에서 며칠간을 누워 치료를 받았다.

전희식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인천 북 갑 위원장)
주소 : 인천시 [redacted]

속 보

최동 열사여! 부활하라! 자주민주통일의 새 세상에!

※ 약 력 ※

1960. 8. 14. 서울 출생
1980. 3.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입학
1983. 5. 25. 광주민중항쟁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학내시위 주도. 구속
1984. 10. 부천에서 노동운동에 투신
1988. 3~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활동.
1989. 4. 28. 인노회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1989. 9. 18. 집행유예로 출소.
1990. 8. 7. 오전 9시 30분 한양대 사회과학대 403호에서 분신
즉시 한양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형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화상으로 10시경 끝내 운명.

민주 노동자 최동 열사 분신항거

최동 열사는 8월 7일 (화) 오전 9시 30분경 한양대 사회과학대 403호실에서 신나를 몸에 뿌리고 분신, 즉시 한양대 부속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형체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화상으로 응급실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열사는 성균관 대학 재학시 학생운동에 투신, 대학 4학년 때 교내 시위 주동으로 구속되있다. 출소 후에는 부천지역에서 노동운동에 투신, 89년 4월 28일 치안본부 대공분실(홍제동)로 연행될 때까지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서 활동하였다. 당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으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강제 연행되어 20여일 동안 극도로 폐쇄된 밀실에서 잠을 안재우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열사는 89년 공안정국을 정당화하려는 수사 당국의 인노회 사건을 확대 조작하려는 의도에 대항하여 두 차례에 걸쳐 자해행위를 하였다. 이후 적절한 치료나 정확한 검사조차 받지못한 채 불면과 소음, 약물과 가스 투여에 대한 심한 압박감에 시달렸고 마침내는 정신분열증세와 실어증세로까지 치닫았다. 출소 후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89년 9월 18일 출소이후에도 열사는 같은 증세로 시달리오면서도 민족민주운동에 몸담고자 한 한 인간의 인간성마저도 철저히 파괴하려 했던 정권의 간악함을 폭로하고자 했다. 그 진상을 밝히는 방법으로 열사는 끝내 분신으로 마지막 항거를 했다.

이에 최동 열사 장례임시대책위원회에서는 노동운동에 온 몸을 불사르고자 했던 열사의 뜻을 받들어 민주노동자장으로 장례를 치르고자 한다. 또한 한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시켜 낸 정권의 정신적 고문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요구한다.

사 건 일 지

89. 2. 11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를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구성으로 몰아 사무국원 5명을 치안본부에서 불법 연행하였으나 이적 단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구속영장이 기각.

2. 18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사전 구속영장 재발부

4. 28 최동 열사는 부천 지역에서 임금인상 투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교육, 홍보하던 중 인노회 가입 혐의로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 3계 요원들에 의해 영장없이 연행됨.

4. 29 연행 이후 묵비권 행사, 취조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취조실,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짓찧어 자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상처의 고통과 정신적 압박 (잠 안재우기)을 주로 하는 수사의 지속으로 이후 혼미상태에 빠져듬.

5. 19 강압적 취조 속에서 음모 조작에 빠질 경우를 염려하여 서부서 유치장에서 오전 8시 칫솔로 기도가 1Cm가량 뚫어지는 자해를 함.

5. 22 구치소에 수감되어 소독약, 반창고만 붙이는 가벼운 치료만 받음.

6. 1 계속되는 가족의 항의로 사당의원 김록호 원장으로부터 외래진료받음. 이때 열사는 불면증을 호소하였다.

7월 초 구치소 의무과에서 지급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후 발작과 실어증세가 보름 정도 나타남.

7월 말 종로 신경정신과 김병후 원장에게 1차 외래진료 받음. 의사소견 결과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세로 진단, 구치소 밖의 치료가 요구되었으나 불허됨.

8월 각계의 탄원서 제출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

8. 25 인노회 사건 관련, 가족 25명 진상규명과 치료를 요구하는 농성, 2차 진료 후에야 비로소 구치소 의무과장이 출소 상태에서 치료를 요한다는 의견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

9. 18 집행유예로 출소

출소 이후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불면과 폐인에 이르게 하는 약물투여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하며 고통을 호소,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 계속, 다른 동료들에 대한 탄압을 걱정하고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인체실험의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계속 시달림. 이때에는 정상적인 생활 (텔레비전 시청, 독서, 대화) 등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도의 무기력 상태와 불안증세 및 불면 지속.

11. 21 종로 신경정신과에 입원

90. 1. 4 퇴원

4월 불면, 수전증,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심화됨.

4. 28 부천 중동에서 연탄가스로 자살 기도.

6월 퇴원 후 자신에게 가해진 피해상황을 알리려고 노력.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의 상태를 설명, 진상을 밝혀줄 것을 호소.

메모를 남김. (미제와 적들의 탄압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8. 7 한양대 사회과학대 403호 강의실에서 분신.

밀실수사, 고문기관 치안본부 대공분실 해체하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고문진상 규명하라.

분향장소 :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영안실 TEL : 293-4499

1990. 8. 8.

고 최동 민주열사

장례임시대책위원회